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로 2주 연속 '빌보드 200' 차트인
방탄소년단이 2집 '윙스'로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 이름을
올려 또 한 번 한국 최초 기록을 세웠다. 26일 빌보드에 따르면 11월 1주
차 빌보드 200에서 '윙스'는 106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가
수가 동일 앨범으로 2주 연속 차트에 머문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박열·김구...식민시대 영웅들 스크린서 부활

'박열' '대장 김창수' 잇따라 제작
숨겨진 영웅·숨겨진 활약상 주목

식민시대의 숨겨진 영웅들이 스크린에서 부활한다. 비극적인 시대를 희망으로 살아낸 인물들을 향한 영화계의 호기심이 끊이지 않은 결과다.

최근 송강호 주연의 '밀정'(749만)과 앞서 '암살'(1270만)의 흥행은 실존 독립투사의 삶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이어졌다. 역사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인물들을 찾아내는 역할도 독특하게 해냈다. 이를 통해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을 비롯해 일본 경찰신분으로 독립군을 도운 황옥, 의열단장 김원봉이 잇따라 주목받았다.

이런 분위기는 또 다른 영화로 이

어진다. 이제훈 주연의 '박열'(제작 박열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조진웅 주연의 '대장 김창수'(감독 이원태·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가 그 맥을 잇는 작품이다.

'박열'은 독립투사를 '발굴'하는 역할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 올해 초 윤동주 시인의 삶을 비춘 '동주'로 호평 받은 이준의 감독은 이번엔 일제 강점기 무정부주의 단체를 조직해 활약한 박열에 주목한다.

박열은 일본 왕세자 폭살을 계획한 인물. 당시 일본 내각에게까지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지만 여성 독립투사보다 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준의 감독은 박열의 드라마틱한 삶에 매료돼 오랫동안 영화를 준비해왔다. 상당 분량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

를 토대로 고증을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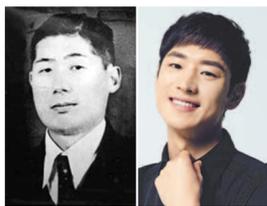
주인공 박열은 배우 이제훈이 연기한다. 이준의 감독은 "뜨겁고 단단한 불명이 같은 이제훈이 박열의 내면과 닮았다"고 했고, 이제훈은 "한 인물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연기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다.

최근 치열한 캐스팅 경쟁의 주인공이 된 조진웅이 일제강점기 출연을 결심한 '대장 김창수' 역시 비슷한 길을 걷는다. 영화는 짧은 시절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활약한 실존 독립운동가의 삶을 발굴한다. 훗날 독립군의 영웅이 되는 인물의 숨겨진 '짧은 시절'에 주목한다. 묻혀 있던 사실을 찾아 내려는 제작진의 접근이 새롭다. 이들 영화는 규모를 키워온 기존

일제강점기 시대극과도 확연히 다르다. 앞서 '암살'과 '밀정'이 제작비 100억원을 훌쩍 넘겼다면 최근 시대극은 규모의 다변화에도 주력한다.

'박열'은 제작비 20억원 규모다.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제작진은 "문제없다"는 입장. 앞서 5억원으로 '동주'를 완성해 호평과 흥행을 동시에 얻은 투자배급사 메가박스플러스엠이 '박열'을 맡는다. 메가박스플러스엠 한국영화팀 관계자는 26일 "'동주'를 통해 역사 속 인물을 기록에 입각해 발굴하는 작업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열' 역시 사실과 기록에 기준을 두고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이용관 유죄 선고에 영화인단체들 강력 반발

이용관(사진)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법원이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이 전 위원장이 허위 중개업체를 내세워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영화 관련 9개 단체로 이뤄진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부산시는 이 전 위원장에게 사죄를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무고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했다"며 "재판부가 부산시의 정치적 호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씨니' 미국서 리메이크... '엑스맨' 감독 연출

영화 '씨니'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다. 26일 미국 뉴스사이트 매서블은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 '씨니'가 브렛 래트너 감독에 의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다. 미국 랫벳 엔터테인먼트와 CJ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리메이크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브렛 래트너 감독은 청룡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러시아워'와 '엑스맨'을 연출했다. '씨니'는 2011년 개봉해 744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심은경, 강소라, 민효린, 남보라, 천우희 등이 출연했다.

'무한도전' 25개월째 한국인 선호 프로그 1위

MBC '무한도전'이 25개월 연속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뽑혔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의 지지율로 25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2위는 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8.6%), 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4.4%)은 3위를 기록했다.

송강호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서 대상

배우 송강호(사진)가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이 주최하는 '제6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송강호는 25일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4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전·정혜영 부부는 아름다운예술인상 선행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름다운예술인상은 매년 가장 뛰어난 활동업적을 남긴 영화와 연극 예술인이나 선행으로 돋보이는 예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 빅마우스

- "어느 순간이 되니 여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다." (배우 이미숙) 26일 방송한 SBS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해, "요즘 연애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안하고 있다"며,
- "박신혜가 계속 웃기에 내게 관심이 있나 싶었다." (배우 조정석) 6일 열린 영화 '형' 제작보고회에서, 웃음꽃이 피었던 촬영 첫날 표정을 소개하며,
- "이래서 연예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누리꾼 jk8****) 톱강 잔고 3422원에 불과했던 그를 M.I.B 출신 강남이 마침내 5층 건물 주인이 됐다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26일 열린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5 제작발표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2007년 시즌1은 제작발표회도 열지 않고 방송을 시작했다. 드라마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짐작케 한다. 사진제공 | tvN

김소연 '일·사랑 다 잡은 여자' 내달 27일 소극장 팬미팅 개최

'연인' 이상우과 달콤한 시간도

연기자 김소연이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데뷔 22년 만에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그는 두 달여 남은 연말까지 그동안 팬들이 보내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최근 공개 연애를 시작한 이상우과도 알뜰하게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먼저 팬미팅을 열고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 11월27일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팬들과 만난다. 팬들과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150~200석의 소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년 전 열린 팬미팅에서도 노래, 토크,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팬 서비스를 선보인 만큼 이번에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각오로 한창 준비 중이다.

팬미팅은 김소연이 이달 초 '2016 코리아드라마어워즈'에서 대상과 올해의 스타상 등 2관왕을 차지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주연한 MBC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상'을 통해 큰 사랑을 받으며 수상까지 하게 되자 팬들에게



연기자 김소연(오른쪽)은 MBC 드라마 '가화만사상'에 함께 출연한 이상우와 공개 연애중이다. 사진제공 | MBC

보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드라마를 통해 이상우와 연인의 정을 쌓게 된 만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 팬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소연은 최근 공개 연인을 선언한 이상우와 데이트도 꾸준히 즐기고 있

다. 김소연의 한 측근에 따르면 남자친구와 '맛집'을 찾아다니며 다른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 사람이 드라마를 끝낸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차가작은 천천히 고르고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아이돌 컴백 뺨친 '막돼먹은 15'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5〉

제작발표회 페이스북 통해 생중계
9년 이어온 드라마 위상 변화 방증

케이블채널 tvN 월화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가 시즌15의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26일 진행된 제작발표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톱스타인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출연하지 않음에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드라마가 9년 만에 그 위상이 변화했음을 말해주는 방증이다. 2007년 시즌1은 제작발표회도 열지 않고 방송을 시작했다. 이번 생중계는 tvN에서 '막돼먹은 영애씨'가 차지하는 비중과 존 재감이 점차 커지면서 방송사 측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인 김현숙, 라미란, 이승준, 고세원, 정다혜 등은 방송 전 시청자와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 사실 제작발표회 생중계 기회를 얻은 콘텐츠는 많은 팬을 보유한 스타

가 등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팬들이 접속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어 향후 해외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콘텐츠가 자주 활용해왔다. tvN도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삼시세끼' '꽃보다 청춘' '신서유기' 등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해왔고, 이제 '막돼먹은 영애씨'가 담당하게 됐다.

2007년 4월 선보인 '막돼먹은 영애씨'는 케이블채널 통틀어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노치녀' 영애(김현숙)가 집과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 여성 시청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tvN 관계자는 26일 "방송사 대표 콘텐츠인 만큼 이전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생중계를 기획했다"며 "최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권 시청자가 출연자의 이름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찾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안타까운 아이돌 스타들의 공황장애

아이돌 스타들이 공황장애로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장훈 이경규 이병헌 김구라 등 공황장애가 주로 40~50대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20대 초중반의 아이돌 스타들이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어져서 안타까움

도 크다.

최근 한 달 사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이돌 스타는 남성그룹 B.A.P 방용국(26)과 크레용팝 소울(25), 워너의 남태현(22)도 "심리적 건강 문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마이걸 진이는 거식증, 에이프릴

현주는 호흡장애 등 공황장애와 유사한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질환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스트레스가 주 요인으로 지적된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신작의 성과에 대한 불안감, 악성댓글 등이 아이

돌 스타들이 겪는 주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꼽힌다.

오마이걸 진이가 거식증으로 고통받게 된 것은 '통통하다'는 내용의 악플에 시달린 탓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기 걸그룹 멤버는 '뭉텨졌다'는 악플에 자주 카메라를 피하고, 방송 출연을 꺼려 소속사 측이 큰 고민을 하기도 했다.

경쟁체제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

한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본인도 소속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갑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심할 것"이라며 "꾸준히 대화하고 격려하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책 랭킹

10월 12일~10월 18일, 자료: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1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2	남만적인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알랭 드 보통
3	자존감 수업	윤홍균
4	블로노트	타블로
5	나에게 고맙다	전승환
6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7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8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9	나미야 집회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10	채식주의자	한강